

존 칼빈과 한스 킹의  
교회론 비교연구

指導 최 태 영 教授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4년 11월 27일

영남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과 조직신학 전공

권 성 섭

# 권성섭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主審 \_\_\_\_\_

副審 \_\_\_\_\_

副審 \_\_\_\_\_

영남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2004년 11월

## 謝 辭

이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최태영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 11월

권 성 섭

## < 목 차 >

I. 들어가는 말 .....	1
A. 연구 동기 및 목적 .....	1
B. 연구방법 및 범위 .....	2
II. 존 칼빈의 교회론 .....	3
A. 교회의 본질 .....	3
1. 신자의 어머니로서의 교회 .....	4
2.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	6
3.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의 공동체로서의 교회 .....	9
4.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 .....	11
B. 참된 교회의 표지 .....	13
1. 말씀 .....	14
2. 성례 .....	17
3. 권징 .....	24
III. 한스 쾅의 교회론 .....	26
A. 교회의 본질 .....	28
1. 교회의 본질과 형태 .....	28
2. 교회의 근원 .....	30
a. 하나님의 나라 .....	30
b. 교회의 기원 .....	32
c. “에클레시아” .....	34

3. 교회와 하나님 나라 .....	36
a.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구별 .....	36
b. 하나님 나라의 전조로서의 교회 .....	38
c. 하나님 나라에 봉사하는 교회 .....	39
d. 예수의 바실레이아 설교의 다섯가지 관점 .....	40
B. 교회의 내적 구조 .....	46
1.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 .....	46
2. 성령의 피조물로서의 교회 .....	50
3.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	55
IV. 칼빈과 쿵의 교회론 요약과 비교 .....	57
A. 요약 .....	57
1. 칼빈의 교회론 .....	57
2. 쿵의 교회론 .....	59
B. 비교 .....	63
1. 교회론의 출발점 .....	63
2.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	64
3.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 .....	64
4. 기타 .....	65
a. 칼빈의 강조점 .....	65
b. 쿵의 강조점 .....	66
V. 결론 .....	67
참고문헌 .....	69

## 약어 표

<i>Co</i>	<i>I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ma</i> , ed. G. Baum, E. Cunitz, E. Reuss, P. Lobstein, and A
Erichson	
<i>Comm.</i>	<i>Commentry</i>
<i>CR.</i>	<i>Corpus Reformatorum</i>
<i>Inst.</i>	John Calvin, <i>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i> , 1559 ed
<i>OS</i>	<i>Calvini opera selecta</i> , ed. P. Barth and W.Niesel

# I. 서론

## A. 연구 동기 및 목적

존 칼빈은 16세기의 프로테스탄트 개혁 신학자였으며, 한스 쾅은 현 시대의 카톨릭교회 내의 프로테스탄트적인 개혁 신학자이다. 두 개혁 신학자들은 로마 카톨릭의 교황 중심의 교회제도로부터 교회의 개혁을 주장했고, 또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존 칼빈의 교회론은 개신교 교회론의 토대를 제시하며, 한스 쾅의 교회론은 현 시대에서의 교회론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두 개혁 신학자들은 교회론을 펼치면서 먼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부터 규명하면서 들어간다.

두 신학자의 교회론을 같이 연구하게 된 동기는 첫째, 서로 다른 시대적인 배경에서 교회론을 펼쳤다는 이유에서다. 칼빈은 16세기의 학자였으나 오늘날도 여전히 개신교 교회론의 근간이 되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대적인 간격이 주는 한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개신교 교회론의 토대가 되는 칼빈의 교회론을 바탕으로 하면서 현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쾅의 교회론으로써 시대적 간격이 주는 한계를 보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두 사람의 교회론을 함께 살펴보기로 했다.

둘째, 두 학자들은 교회론을 펼침에 있어서 교회의 본질을 규명하

려고 애썼다는 이유에서다. 오늘날 교회들은 어떻게 교회를 성장시킬 것인가 하는 방법론에 많이 매달리고 있다. 그러므로써 교회의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는 병폐들이 드러나고 있다. 신학도들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확고한 신학 정립이 없이 이런 교회 현장에 들어간다면 같은 전철을 밟을 위험성이 있다. 연구자도 목회현장에의 진입을 눈앞에 둔 자로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을 규명하고 정립해야 할 필요를 절감하며 두 학자의 교회론을 연구해 보기로 했다.

교회의 형태는 시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어도 교회의 본질은 불변하는 동일성과 일관성을 가진다. 16세기를 배경으로 하는 칼빈의 교회론에서나 현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쾨의 교회론에서나 교회의 본질은 동일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본 연구에 임한다. 따라서 “존 칼빈과 한스 쾨의 교회론 비교연구”의 목적은 교회의 본질에 대한 규명에 있다. 연구자는 목회현장으로 나가는 초년생으로서 교회가 뭐다는 초보적인 정립이라도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두 학자들의 교회론을 살펴보기로 한다.

## B. 연구방법 및 범위

연구자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 4 권과 한스 쾨의 『교회(The Church)』를 주 텍스트로 하여 두 사람의 교회론을 살펴 보려고 한다. 그리고 두 학자의 교회론에 대해서 쓴 다른 학자들의 논문을 부분적으로 참고하기로 한다.



두 학자의 교회론 전반을 다루는 데는 연구자의 역량으로는 역부족임을 시인하며, 교회의 본질론에 한하여 두 학자가 교회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교회의 본질과 관련하여 칼빈의 교회론과 쾨의 교회론을 각각 정리하고 요약한 후에 비교해 볼 것이다. 이 비교에 있어서 양자의 차이점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상호보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개신교 교회론의 토대가 되는 칼빈의 교회론에 입각하면서 쾨의 교회론을 보충함으로써 현시대에서의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접근해 보려고 한다.

이 초보적인 교회론 연구가 목회현장으로 들어가는 연구자와 목회자 후보생들로 하여금 교회의 본질을 정립하고 본질에 충실하는 교회 봉사자들이 되게 하는 데 조그만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

## II. 존 칼빈의 교회론

### A. 교회의 본질

칼빈은 기독교강요 제 4 권에서 교회의 필요성을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는 그가 가져오신 구원과 영원한 부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고 키우며 목적지까지 전진시키려면 무지하고 태만한(또 경박한) 우리들에게는 외적인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약점에 대비해서 필요한 보조 수단도 첨가하셨다. 그리고 복음전파가 활발하게 전개되도록 이 보물을 교회에 맡기셨다.<sup>1)</sup>

우리는 육신의 감옥에 갇혀 있어서 아직 천사들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섭리로 우리의 능력에 적당한 방법을 취하셔서 아직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성으로 깨어져 버린 관계를 다시 확립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의 성육신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시기까지 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선물을 내려 주신 사람들의 성화를 증진시키려고 이 땅에 있는 수단을 사용해야만 했다.<sup>2)</sup> 그 수단이 바로 교회인 것이다. 즉 교회는 무지하고 태만하고 연약한 신자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성장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칼빈은 이런 의미에서 신자의 어머니로서의 교회를 말한다.

## 1. 신자의 어머니로서의 교회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품속으로 자녀들을 모으시기를 기뻐하셨는데

---

1) Inst. IV. 1.1

2) 프랑수아 반델, Calvin, 김재성 역(고양 : 크리스찬다이제스트사, 2001), p. 355

이는 그들이 유아와 어린아이일 동안 교회의 도움과 봉사로 양육받을 뿐 아니라 어머니 같은 교회의 보호와 지도를 받아 성인이 되고 드디어는 믿음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은 어머니로서의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양육하게 하신다. 어머니가 우리를 잉태하고 낳으며 젖을 먹여 기르듯이 우리가 이 육신을 벗고 천사같이 될 때까지 보호 지도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명으로 들어갈 수 없다. “연약한 우리는 일평생 교회에서 배우는 자로 지내는 동안 이 학교에서 떠나는 허락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부성적인 은총과 영적 생명의 특별한 증거를 그의 양떼에게 국한시킨다. 따라서 교회를 떠나는 것은 언제든지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다.”<sup>3)</sup>

하나님은 성도들을 양육하게 하기 위해 교회에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까지 이르도록” 하신다(엡 4:10-13). 하나님께서는 일순간에 그 백성을 완전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들이 교회에서 교육을 받으므로써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sup>4)</sup> 모든 성도들은 교회의 품 안에서 가르침과 양육을 잘 받으며 성장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불어넣으시는 것은 복음에 의해서다.

---

3) Inst. IV.1.4

4) Inst.IV.1.5

즉 목사들의 복음설교와 교사들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양육을 받으며 성장하도록 하신 것이다. “신앙은 들음에서 온다(롬 10:17).”고 바울은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으나(롬 1:16),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복음설교자의 복음설교를 통하여 전개하신다.<sup>5)</sup> 하나님께서 교회의 손을 통하여 주시는 영적 양식을 멸시하는 사람은 모두 굶주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상에서 어머니가 자식을 낳고 젖을 먹이고 키우듯이 교회는 신자를 품에 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가르치고 양육하는 어머니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은 교회에 세우신 목사들과 교사들을 통해 신자들을 양육하신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모든 신자는 교회의 품에서 양육을 받아야 한다. 모든 신자는 목사들과 교사가 전해 주는 말씀과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하는 것이다.

## 2.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칼빈은 교회를 신자의 어머니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도 표현한다. “모든 선택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었으므로(엡 1:22-23참조) 한 머리에 의존하며 서로가 한 몸이 되고 한 몸에 달린 지체들같이 서로 단단히 결합된다(엡 4:16 참조).”<sup>6)</sup>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

5) Inst.IV.1.5

6) Inst.IV.1.2

되신다는 것과 서로 몸을 형성하고 있는 성도가 연합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교회의 단일성을, 교회의 연합은 성도의 교통을 보게 한다.

우리가 우리의 머리아신 그리스도 아래에서 모든 다른 지체들과 연합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장차 기업을 받으리라는 소망은 없게 된다. 교회를 보편적이라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누어지지 않는 한(고전 1:13) 교회도 둘이나 셋이 있을 수 없다. 모든 선택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었으므로 (엡 1:22-23) 한 머리를 의존하며 서로가 한 몸이 되고 한 몸에 달린 지체들같이(롬 12:5; 고전 10:17; 12:12,27) 서로 단단히 결합된다(엡 4:16). 그들이 참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또 같은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함께 살기 때문이다. 그들을 부르심은 영생을 다 같이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한 하나님과 한 그리스도께 참여시키기 위함이다(엡 5:30).<sup>7)</sup>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심을 말한다. 그리스도 이외의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교회를 지배할 수 없다.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통치자이며 머리가 되신다. 모든 교회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또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교통’을 의미한다. 칼빈은 성도의 교통을 대단히 강조하면서 그것은 교회의 본질에 속한 문제라고 한다. 성도의 교통이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든지 서로 나눈다는 원칙 하에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소집되었다는

---

7) Inst.IV.1.2

사실을 말한다.<sup>8)</sup>

또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교회의 연합을 의미한다. 키프리아누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교회는 하나이지만 결실이 많으므로 널리 퍼져 많은 교회가 된다. 빛이 하나이면서 그 광선은 많은 것과 같다. 나무의 가지는 많으나 그 굳센 줄기는 하나이며, 줄기는 땅속에 튼튼히 뿌리를 박고 있다. 한 샘에서 많은 시내가 흐르고 많은 시내가 각각 자체의 풍부함에서 넘쳐 흐르는 것 같지만 근원은 하나이다. 태양에서 오는 광선을 보라. 태양 자체는 갈라지지 않는다. 시냇물의 근원을 막아보라. 시내는 말라버린다. 그와 같이 교회는 주의 빛을 풍성하게 받아 전세계에 퍼뜨리며, 그 빛 하나하나씩은 각지에 확산된다.<sup>9)</sup>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가 끊을 수 없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한다. 이단설과 분파가 생기는 것은 사람들이 진리의 근원으로 돌아가지 않으며 머리이신 분을 찾지 않고 하늘 교사의 교훈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sup>10)</sup> 하나님께서 모든 신자의 아버지이시며 그리스도께서는 그들 모든 신자들의 머리시라는 것을 참으로 확신한다면 그들은 형제애로 연합되지 않을 수 없고 또 그들이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지 않을 수도 없다.<sup>11)</sup>

칼빈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서로 연합된 몸이라

---

8) Inst.IV.1.3.

9) Augustine, *Questions on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 xi. 1-2(Mpl 35.1367f.).

10) Inst. IV.2.6.

11) Inst. IV.1.3.

는 사실은 우리에게 확신과 신뢰를 준다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교회는 영원불변하시는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지체가 찢기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는 것과 같이 신자들이 자기에게서 멀어지는 것도 허락하시지 않을 것이다.”<sup>12)</sup> 그뿐 아니라 우리가 교회의 품속에 머물러 있는 동안은 진리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고 견고한 기초에 서 있으며 따라서 온 세계의 조직이 무너지더라도 교회는 흔들리거나 넘어질 수 없다.

### 3.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의 공동체로서의 교회

교회의 본질에 대한 칼빈의 또 다른 개념은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교회’의 개념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의 가시적인 면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단체, 곧 선택받은 자들을 가리킨다.<sup>13)</sup> 하나님의 은밀한 선택과 내적인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 전체가 교회인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밀한 선택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 “거대한 군중 속에 보잘 것 없는 작은 무리가 숨어 있고 몇 개의 밑알이 쭉정이 더미 속에 묻혀 있으므로 우리는 교회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께만 일임해야 한다.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은밀한 선택이다.”<sup>14)</sup>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여 부르시고 그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져가게 하시는 것이다.

---

12) Inst. IV.1.3

13) W. Niesel, 「칼빈의 신학」, 이종성 역(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3), p.188.

14) Inst. IV.1.2

칼빈이 교회의 본질로서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교리의 언급을 통하여 얻고자 했던 것은 위로였다. 마귀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멸시키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한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멸시킬 수는 없으며 그리스도의 피를 무익한 것으로 만들지도 못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밀한 선택과 그의 내적 부르심을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시며(딤후 2:19)”, 바울의 말과 같이 그들에게 모두 인을 치셨다(엡 1:13). “그들은 하나님의 휘장을 달고 있어서 버림받은 자들과 구별된다.”<sup>15)</sup>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에는 이처럼 위로가 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인을 치신 그 백성을 마귀가 어떤 수로도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데 성공할 수 없는 것이다.

칼빈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밀한 선택의 구체적인 유익을 두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존립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와 같이 동요하거나 과멸될 수 없다. 둘째, “교회는 영원불변하시는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지체가 찢기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는 것과 같이 신자들이 자기에게서 멀어지는 것도 허락하시지 않을 것이다.”<sup>16)</sup>

이처럼 선택교리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준다. 니젤은 “이 선택교리아말로 인간적인 것을 모두 앗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확신하는 일에 거하게 한다. 이것 때문에 이 세상의 권력의 모든 공격에 대하여 불

---

15) Inst. IV.1.2

16) Inst. IV.1.3



굴의 체제를 확신케 한다. 칼빈의 선택교리는 교회가 세상에서 봉사하는 동안 필요한 안정과 확신과 저항력을 부여한다.”<sup>17)</sup>고 하였다.

이상에서 칼빈은 선택교리를 유익의 차원, 즉 선택교리의 실용성과 효율성이라는 차원에서 말하고 있다. 곧 하나님의 선택 위에 교회는 서 있으므로 무너지거나 파멸될 수 없다는 것이다.

#### 4.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

교회에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칼빈이 이 두 가지 교회를 말한다고 해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두 가지 교회가 개별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말한 것은 아니다.<sup>18)</sup>

가시적인 교회는 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에게 복종할 의무를 가진 유형적 교회를 말한다. 보이는 교회는 살아 있는 사람만이 모이는 곳이다. 지상에 살아 있으며 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경배한다고 고백하는 세계 각지에 산재한 사람들을 말한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과거나 미래나 장소의 원근을 막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하게 산 사람, 곧 참된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말한다.<sup>19)</sup>

보이는 교회 전부가 다 성서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참

---

17) W. Niesel, *op.cit.*, p. 189

18) 이종성, 『칼빈-생애와 사상-』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p. 139.

19) *Ibid.*, p. 140.

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라고 할 수는 없다. 보이는 교회 안에는 이름과 외형만 있고 그리스도는 전연 없는 위선자들이 많이 섞여 있다. 야심과 탐욕과 시기가 가득한 사람들 또 중상하는 사람들이 심히 많고 아주 불결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얼마간 있다. 이런 사람들이 일시 허용되는 것은 자격이 있는 재판기관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기가 불가능하거나 강력한 규율이 항상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어거스틴이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에 따라 “밖에도 양이 많고 안에도 이리가 많다.”<sup>20)</sup>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다(딤후 2:19).<sup>21)</sup> 주께서는 주를 모르고 자신도 모르는 자들을 아시며 표를 해 두셨다. 주의 눈만이 주의 휘장을 달고 다니는 자들 가운데서 진정으로 거룩한 자들과 구원의 종점에까지(마 24:13) 견인할 자들을 알아보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에 알맞은 판단기준을 허락하여 주셨다. 칼빈은 이것을 “사랑의 판단”<sup>22)</sup>이라고 부른다. 사랑의 판단으로 우리는 믿음의 고백과 삶의 모범과 성례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교회의 회원으로 인정하게 된다.

또한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파하며 또 듣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성례를 지킬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sup>23)</sup>고 한다.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 18:20)”고 하신 약속은 반드시 실현되기

---

20) Augustine, John's Gospel xlv. 12(MPL 35. 1725;tr. NPNF VII, 253f.)

21) Inst. IV.1.8

22) Inst. IV.1.8

23) Inst. IV.1.9.

때문이다.

## B. 참된 교회의 표지

칼빈은 "한 단체로서 말씀을 선포하고 공경하며 성례를 집행하고 있다면 물론 그것은 교회라는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sup>24)</sup> 말씀을 순수하게 선포하고 성례를 순수하게 집행한다면 이런 표지가 있는 단체를 교회로 인정해도 좋다.<sup>25)</sup> 그는 또한 "이런 표지(말씀 선포, 복음의 선포에 경건하게 귀기울이는 곳, 성례)가 있는 교회는 아무리 결함이 있더라도 버려서는 안된다. 말씀을 선포하며 성례를 지키는 것을 우리를 교회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표지로 결정했다"고 한다.<sup>26)</sup> 말씀과 성례에서 주께서 인정하신 규칙을 지니고 있다면 그 집단은 거짓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집단에 교회에 바칠 존경을 확실히 드려야 한다.

이 표지를 보존하고 있는 한 다른 결점이 많더라도 우리는 그 공동체를 배척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교회들 사이에는 다른 신조들에 대한 논쟁이 있으나 그것이 신앙에 의한 연합을 깨뜨리지는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비본질적인 문제들에 관해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이유로 분열을 일으켜서는 안된다. 사소한 의견충돌 때문에 경솔하게 교회를 버려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말씀과 성례가 없으면서 교회를 자칭한

---

24) Inst. IV.1.9.

25) Inst. IV.1.12.

26) Inst. IV.1.10.

다면 세밀한 경계심으로 이런 거짓에 대처해야 한다.<sup>27)</sup>

말씀선포와 성례를 행하는 교회에는 반드시 결실이 있으며 성공을 거둔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말씀이 거하는 곳에는 반드시 효과가 나타난다. 복음선포에 경건하게 귀를 기울이고 성례를 경시하지 않는 곳에서는 우선 교회의 형태가 보이며, 그것은 속임수도 아니요 모호한 것도 아니다. 주께서는 그의 교회의 교통을 심히 중요시하시므로 교회가 말씀과 성례를 소중히 여긴다면 그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떠나는 교만한 사람을 배반자와 배교자로 여기신다.

## 1. 말씀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 교회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결코 없다”고 한다.<sup>28)</sup>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딤후 3:15) 부르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바울이 사용하는 이런 말의 뜻은,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가 이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진리의 충실한 파수꾼이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봉사와 수고에 의해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기를 원하셨고, 영적 양식과 구원에 유익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스스로 한 가족의 아버지이심을 보이려고 하셨다.<sup>29)</sup>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요 18:37). 그의 음성

---

27) Inst. IV.1.11.

28) Inst. IV.2.4.

29) Inst. IV.1.10.

을 듣고 따른다(요 10:14).

교회의 기초는 사람의 판단이나 사제의 계급이 아니라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교훈이라고 바울은 우리의 기억을 환기시킨다(엡 2:20).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으로다(요 8:37).” 교회는 그리스도의 나라이며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말씀만으로 지배하시므로, 그리스도의 홀 즉 그의 지극히 거룩한 말씀과는 별개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존재하듯이 상상하는 것은 거짓 말이다(렘 7:4 참조).<sup>30)</sup>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부름받고 지명된 설교자를 통해 사람들에게 들려진다.<sup>31)</sup> 말씀을 설교하는 사람의 사명은 예배하는 교회 가운데서 성경을 설명하고 전파하되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의 말을 통해 옛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일을 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야 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말이 되게 하시고 창조주와 구세주의 말씀의 능력과 효력을 갖게 하실 것을 기대해야 한다. 사람에게 의해 선포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역자들의 음성을 통해서 나오는 음성으로 들려지기 원하신다.

그러므로 말씀을 선포하는 일과 선포하는 자의 말씀은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계시며, 사람들로 하여금 섬기는

---

30) Inst. IV.2.4.

31) Ronald S. Wallace,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선포된 말씀”, 『칼빈신학의 이해』, 이종태 역(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1) p. 304.

사람의 음성을 통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는 기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sup>32)</sup>

선포된 말씀에는 이중효과가 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통해 굴복하게 되지만 반면에 진리의 원수들은 더욱 더 교만하여 반항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현실처럼 온 세상이 갈등 속에 빠지게 된다. 설교는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도 있지만 굳어지게 할 수도 있다. 듣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가 하면 정죄할 수도 있다. “복음 설교가 헛되이 끝나는 일은 없다. 반드시 생명이든 사망이든 효과를 남긴다.”<sup>33)</sup> 말씀은 신자들의 구원에 효험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악인들을 정죄하는 데 효험이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말씀의 선포를 통해 제공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직면하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sup>34)</sup> 은혜는 인간의 결정에 따라 당장 그 다른 면, 즉 심판으로 변한다. 물론 그 반대도 될 수 있다.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세상의 심판이 계속되고 있다.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의 홀이므로 말씀을 배척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공공연히 모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큰 죄는 없다. 유기된 자들은 누그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며 철 같은 마음을 가진다 해도 자신들의 죄책감으로 억제를 받고 있다. 속으로는 자신이 죽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나님의 법정에 나오지 않으려고 온갖 수단을 다 쓰는 그들이지만 끝에 가서는 그들이 오만하게 조롱한 이 말씀에 의해 의지와는 반대로 끌

---

32) *Ibid.*, p.305.

33) *CR* 50,34

34) 로날드 윌리스, *op.cit.*, p. 318.

려가게 된다. 이것은 마치 난폭한 개가 자기를 묶어 놓은 쇠고리를 물어 뜯으며 할퀴지만 어쩔 수 없는 것처럼 그들은 여전히 꼭 묶여 있다.<sup>35)</sup>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인 이중효과는 그 부정적인 면에 있어서도 교회에 유익하고 신자의 영적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sup>36)</sup> 말씀은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포악한 반응을 일으킴으로써 한편으로는 교회의 생활이 청결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양이 아닌 사람들이 스스로의 선택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 목회자에게는 두 가지 음성이 있어야 한다. 그 하나는 양을 모으는 음성이고, 다른 하나는 이리와 도둑을 물리치고 내쫓는 음성이다.

뿐만 아니라 신자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거스르려는 타고난 성향들을 죽이도록 계속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 죽이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서 악한 것을 죽이고, 굴복시키며, 내쫓을 수 있다. 이것은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는 어떤 살해작용이 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죽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 아래서 계속 새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한다.

## 2. 성례

어거스틴의 제 5항에는 “그러한 믿음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설교라는 의식을 제정하셨으며 성령의 은사를 전가하는 방법으로 복음과

---

35) CR., 55,50.

36) 로날드 윌리스, *op.cit.*, p. 319.

성례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칼빈은 자신의 교회론을 하나님께서 “목  
자들과 교사들을 그들의 말을 통해 자신의 종들을 가르치려고” 세우셨다  
는 관찰로 시작한다.<sup>37)</sup>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성례를 제정하셨는데, 이것들은 사실 우리가  
아는대로 은혜를 받는 유효한 수단들- 우리의 믿음을 지탱하고 견고케 하  
는 수단이다.”<sup>38)</sup> 이 성례의 집행은 설교에 부수적인 것으로 목사들에게 맡  
겨진 것이 아니라(물론 칼빈은 오직 목회자에게 이것을 집행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고 여긴다),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 성례는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는 예배 행위이다. 칼빈은 교회를  
본질적으로 성찬 공동체로 본다. “우리 주님께서 세워 놓은 이 거룩한 식  
사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자주 축하하지 않는다면 그런 교회는 잘 관리되  
고 다스려지는 것으로 볼 수 없다.”<sup>39)</sup>

그러면 칼빈이 이처럼 강조하는 성례를 통해 의도하는 것은 무엇  
인가? 그것은 “외적인 상징으로 확인되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이다.”<sup>40)</sup> 성찬의 본질적인 성격은 그리스도께서 이 의식을 제정하면서  
하신 신성한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결정된다. 물, 빵, 포도주 자체만으로서  
는, 즉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떠나서는 이 상징들은 아무런 의미도 없  
다. 사실 이 눈에 보이는 상징들이 말씀 없이 제시된다면 그것들은 아무런

---

37) Wilhelm Niesel, *The Theology of Calvin*, Harold Knight 역, (England: Lutterworth Press, 1956), p. 321.

38) Inst. IV.1.1.

39) Inst. IV.17.43-44.

40) Inst. IV.14.1.



능력이 없는 죽은 것일 뿐 아니라 해로운 마술이다.<sup>41)</sup> 신실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조그만 빵 조각과 포도주를 부으면서, 그리스도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그분의 보혈은 참된 음료라는 하늘의 진리를 크게 소리쳐 선언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따라서 이 성례를 거행하면서 그의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말씀은 설교를 통해서 해석되지 않으면 안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설교함으로써만 사람들을 그 상징들이 암시하고 또 그것들이 우리를 인도하기로 된 하늘의 장소로 손을 잡고 이끌어 가기 때문이다.<sup>42)</sup> 믿음은 설교를 통해서 온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성례로서 지상적인 상징과 표를 뜻하는 한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은 성례에 근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믿음의 유일한 터전이다.

그러나 말씀 그 자체로 우리의 구원이 확보된다면 이 외적인 상징들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서 각종 수단을 사용하여 사방으로 피어 주고 받쳐 주지 않으면 떨리고 흔들리며 비틀거리다가 결국은 무너지고 만다. 그래서 우리의 자비하신 주께서는 그 무한하신 자비로 우리의 능력에 자신을 적응시키시며, 우리가 항상 땅에 붙어 기어다니고 육에 붙어 떨어지지 않으며 영적인 일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상상조차 하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셔서 이런 땅에 붙은 것까지 이용해서 우리를 자신에게로 인도하시며 육에 있는 우리 앞에 영적인 복의 거울을 두신다.<sup>43)</sup>

---

41) CR. 9,21.

42) Inst. IV.14.4.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명한 것들을 매개물로 제시하신다. 우리의 능력에 가장 적합한 보이는 표징으로 그 신비의 형상을 보여 주시므로 우리가 마치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이 확실하게 알게 하신다.<sup>44)</sup> 하나님께서는 설교라는 사람의 말을 통해 우리 죄인들에게로 낮아지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적인 현실로 자비롭게 낮아지시는 일은 이 성찬에서 극에 달한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이 지상적인 것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지, 둔함, 연약함 때문에 우리들이 그것을 필요로 할 뿐이다. 그러한 친절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배척한다면 우리 자신에게 아주 육중한 죄짐을 쌓아 놓는 것이다.<sup>45)</sup>

여기서 성례가 실제로 우리에게 은사를 전달하는가, 아니면 단지 우리의 믿음에 효과를 줄 뿐인가? 칼빈은 “우리가 성례의 도움을 받아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지식을 배양, 강화, 증진시키며, 그를 더욱 완전히 소유하고 그의 풍부한 은혜를 즐기게 되는 것과 정비례해서 성례가 우리들 사이에서 효과를 나타낸다”고 말한다.<sup>46)</sup> 성례의 작용은 전적으로 그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도록 하고 우리를 그분과 결합하게 한다는 사실에 달려 있다. 성만찬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앞에 계시며 우리

---

43) Inst. IV.14.3.

44) Inst. IV.17.1.

45) CR. 46,679..

46) Inst. IV. 14.16.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sup>47)</sup>이나 다름 없이 실제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알아야 한다.

칼빈은 떡과 포도주라는 상징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제시된다고 말한다.<sup>48)</sup>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을 받으며, 그와 더불어 한 몸으로 자라나며, 그 결과 그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하게 된다.<sup>49)</sup>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계시된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못한다면 모든 것은 헛것이 된다.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 하나님의 한 자녀로 인정되기 위해서 교회라는 공동체에 가입되는 입문의 표징을 말한다.<sup>50)</sup> 세례의 목적은 첫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되고 둘째, 사람 앞에서 우리의 고백에 도움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칼빈은 세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가되는 선물들을 셋으로 본다. 곧 우리의 죄사함,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 그리고 주님과 교제이다.<sup>51)</sup> 이 선물 가운데 두 가지는 전적으로 세 번째 선물에 의해 좌우된다.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통합되었다는 사실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세례의 실제 주체이시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도록 명령하셨지만 이것이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견해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자신을 통해서 성부의 자비

---

47) Inst. IV. 17.3.

48) Inst. IV.17.11.

49) *Ibid.*

50) Inst. IV.15.1.

51) Inst. IV.15.6.

와 성령의 은혜를 받는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세례의 실제 목표와 목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올바르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칼빈은 신약은 종종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라고 말한다. 모든 성례의 본체 또는 실체가 그리스도인 것이다.<sup>52)</sup>

그러면 성례의 효과는 무엇인가? 우리가 성례를 통해서 중보자와의 교제를 획득할 때 우리는 그가 우리를 위해 구해 놓은 모든 것을 받는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동참함으로써 그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하게 되고 따라서 그의 수난에서 온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된다.”<sup>53)</sup> 우리를 위해 자신의 구원사역을 이루신 그리스도에게서 결정적인 효과가 우리에게로 흘러들어온다.

세례의 물을 통해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체험을 하게 되며, 떡과 포도주를 드리는 일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이 우리 속에서 참 생명을 주고 유지하는 체험을 하게 된다는 뜻이다.<sup>54)</sup>

물론 이 모든 것은 성례를 행할 때 선포되는 약속의 말씀 속에도 포함되어 있다. 성찬의 말씀은,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희생당하신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였다는 점을 분명하게 해 준다. 그래서 칼빈은 “성례의 가장 두드러진 능력, 아니 거의 모든 능력은 ‘너희를 위해 주어진 것’과 ‘너희를 위해 흘러진 것’이라는 말씀 속에 자리잡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된다. 성례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연합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와의 연합

---

52) Inst. IV.14.16.

53) Inst. IV.17.11.

54) Inst. IV.17.3.

을 가져오며 우리는 거기에서 중보자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우리를 위해 얻어 놓은 구원 곧 “구속, 의, 성화 및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sup>55)</sup> 성례의 실체, 곧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런 효과가 있을 수 없으며, 신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떠나서는 아무런 구원도 없다.

그렇다면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해 성경은 늘 성령을 언급한다는 점을 칼빈은 관찰했다.<sup>56)</sup> 이 세상을 실제로 이기고 거기서 떠나서 이제는 영원의 세계에 계시는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거리는 오직 하나님 자신의 행동으로만 극복될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은 거룩한 삼위일체의 제 3위, 곧 “성령의 은밀하고 불가해한 능력으로” 이루어진다.<sup>57)</sup> 성령의 활동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수준으로 낮아지시며 동시에 우리를 자신에게로 높이신다. 이러한 성령의 빛으로 우리의 지성을 비추시며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말씀과 성례가 들어오게 하신다.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면 말씀과 성례는 귀를 울리고 눈앞에 나타날 뿐이며 우리의 마음 속에는 아무 영향도 주지 못할 것이다.<sup>58)</sup>

오직 이런 방법을 통해서만 우리는 사람의 말과 땅에서 난 물질을 통해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실체에 동참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몸으로는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만, 그의 영에 의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하늘에 있는 자신에게로 이끌어 올려 우리에게 자신의 육체의 생

---

55) Inst. IV.17.11.

56) Inst. IV.17.12.

57) CR. 16.677,430.

58) Inst. IV.14.8.

명을 주는 힘을 부어 주신다.”<sup>59)</sup> 성령께서는 복음 선포와 성례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있는 큰 간격에 다리를 놓는다. 우리 자신은 본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로 영접할 역량이 없다. 우리의 영혼도 몸의 입술도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받아들일 능력이 없다. 그리스도께서 몸소 자신의 영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의 오심을 맞이하게 하실 수밖에 없다.<sup>60)</sup>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시는 이 그리스도께로의 접근이 바로 믿음이다.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관계는 가장 깊은 존재 차원의 관계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한 믿음은 항상 빈 그릇이지만 말씀과 성례를 통해 믿음을 창조하고 강화하는 성령께서 그렇게 함으로써 믿음의 참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한다.

### 3. 권징

교회도 하나의 사회다. 조그만 가족 같은 사회에서도 규율이 없이는 올바른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면 가장 질서가 정연해야 할 교회에서는 규율이 더욱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교훈이 교회의 생명인 것 같이, 권징은 그 근육이며 이 근육에 의해서 몸의 지체들이 서로 결합되고 각각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sup>61)</sup>

교리를 전하기만 하고, 사적인 충고와 시정과 기타 보조수단을 침

---

59) Inst. IV.17.32.

60) Wilhelm Niesel, *op.cit.*, p. 339.

61) Inst. IV.12.1.

가해서 교회를 지탱하며 실천하게 하신 않는다면 각 사람이 제멋대로 행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권징은 그리스도의 교훈에 반대해서 날뛰는 사람들을 억제하며 길들이는 굴레와 같으며, 나태한 사람을 고무하는 박차와 같고, 더 중한 타락에 빠진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영의 유화함으로써 부드럽게 징벌하는 아버지의 매와 같다.<sup>62)</sup>

권징의 목적은 첫째, 추악하고 부끄러운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빼앗으려는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므로(골 1:24) 악하고 타락한 자들에 의해 부패된다면 그 머리에도 치욕이 돌아갈 수 있다. 교회의 가장 신성한 이름에 수치를 씌우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더럽히는 악행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가정에서 추방되어야 한다.<sup>63)</sup>

둘째 목적은 악한 사람들과 항상 교제함으로써 선한 사람들이 타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인간은 바른 길을 벗어나기 쉬우므로 나쁜 행실을 보면 우리도 바른 생활을 버리고 다른 데로 끌리기가 아주 쉽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고전 5:6).<sup>64)</sup>

셋째 목적은 비루한 자기에 대한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도록 만들려는 것이다. 유화한 처리를 받으면 고집을 피울 사람들이 자기의 악행에 대한 징벌을 받고 매를 맞아 각성하며 유익을 얻도록 하려는 것이다. 임시로 정죄해서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다(고전 5:6).<sup>65)</sup>

---

62) Inst. IV.12.1.

63) Inst. IV.12.5.

64) *Loc.cit.*

### III. 한스 쾅의 교회론

한스 쾅은 로마 카톨릭 내의 프로테스탄트적 신학자라고 할 만큼 그의 신학사상은 개혁적이다. 한스 쾅은 교회론에 관한 두 권의 주요 저작 『교회의 구조론(Structures of the Church)』과 『교회(The Church)』를 펴냈다.

한스 쾅은 교회는 역사적 양상의 변화를 받는 것이므로 교회를 그 역사적 형태 안에서 보고, 아울러 교회의 역사적 형태를 그 본질 안에서 이해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는 『교회란 무엇인가』의 서문에서 “교회란 무엇인가? 이것은 오늘날 이론에만 그치는 질문이 아니다. 온갖 논의와 개혁, 변화와 소용돌이라는, 모든 그리스도교 교회들이 처한 격동하는 현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질문을 절실하게 한다”고 말한다.<sup>66)</sup> “교회는 변화하는 세계 속에 있다....교회는 변했고 변하고 있는 현대 세계 속에 있으며 이 세계를 위해 존재하고 있다.”<sup>67)</sup>

한스 쾅은 신학 이론상의 추상적인 천상의 이상적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과 이 세상 역사 속에 있는 현실 교회를 그의 교회론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교회의 본질은 불변하는 플라톤적 이상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의 역사 안에 있다.<sup>68)</sup> 교회론은 제각기 역사적으로 새로운 구체적 장소에서, 저마다 다른 언어로, 변화무상한 정신풍토에서 날로 새로

---

65) *Loc.cit.*

66) 한스 쾅, 『The Church』, 이홍근 역 (왜관: 분도출판사, 2003), p. 7.

67) *Ibid.*, p.16.

68) *Ibid.*, p.27.



운 세계와 교회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다.<sup>69)</sup>

교회론은 끊임없이 변하는 역사적 상황에 대한 응답인 동시에 요구다. 교회는 변화하는 현실 역사세계 속에 교회는 있고 교회는 이 세계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론은 교회 자체와 더불어 필연적으로 계속되는 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따라서 언제나 새로 시도되어야 한다. 한스 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낡아버린 과거를 보존하려고 새로운 현재의 요구에는 무관심한 보수적 태도와 살아 있는 과거를 무시하고 일시적인 현재의 새로운 변화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급진적 태도와의 중도를 건기란 쉽지 않다. 무비판적으로 과거의 특정한 시대와 문화에 매이는 전통주의 교회론에서 역사성이 몰이해되고 있다면 현재의 시대와 문화에 적응한다고 하여 역시 비판 없이 유해무익한 가변적 현실에 좌우되는 현대주의 교회론에서도 역사성이 몰이해되고 있다.<sup>70)</sup>

변해 왔고 또 변하고 있는 현실역사 속에 교회가 있으므로 교회론은 역사성을 무시해선 안되고, 그렇다고 현재의 시대와 문화에 적응한다고 무비판적으로 현실에 영향을 받아 흔들려서도 안되는 것이다. 변화하는 세계 속에 있는 교회는 이 역사 속에서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 이 세계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

69) *Ibid.*, p.28.

70) 같은 페이지.

## A. 교회의 본질

### 1. 교회의 본질과 형태

교회의 형태는 역사에 따라 변했으나 교회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교회의 본질은 변하는 교회의 형태 속에 있다. 다양한 변모 속의 동일성이요, 갖가지 사건 속의 연속성이며, 변하는 현상 속의 일관성이다.<sup>71)</sup> 즉 본질은 항상 변화 가능한 역사적 형태로만 나타난다. 이런 본질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계속 변하는 역사적 ‘형태’를 주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변하는 역사적 양상 속에서 교회의 본질을 볼 때 비로소 우리는 교회를 파악할 수가 있다. 교회의 본질을 역사적 양상의 뒤에서나 위에서 보지 않고 그 안에서 볼 때 비로써 현실 교회를 볼 수 있다.<sup>72)</sup>

교회의 본질을 규정하는 것은 교회의 근원이다. 그러면 교회의 본질을 규정하는 근원은 무엇인가? 교회의 근원은 “역사 안에 활동하는 하나님 자신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 안에, 인간을 위해, 결국 인간을 위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sup>73)</sup>에 있다. 즉, 교회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활동에 의해 결정된다. 이 교회의 근원이 교회의 본질을 규정한다. 모든 역사적 양상과 변화 속에서의 교회의 타당성은 이 교회의 근원으로부터 찾아질 수 있다. 교회는 이 과거의 근원에 비추어 자기를 조회

---

71) *Ibid.*, p.17.

72) *Ibid.*, p.18.

73) *Ibid.*, p.29.

한다. “교회의 존망도 이 근원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교회의 존립 근거는 결정적으로 타당한 따라서 지금도 타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활동, 즉 교회의 근원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이 교회의 근원을 돌아봐야 한다.”<sup>74)</sup>

이 교회의 근원은 원초적 증언에서 구체화된다. 교회의 근원을 구체화하는 원초적인 증언은 구약성서와 신약성서 속에 있다. 교회의 근원은 하나님 자신의 생생한 종말론적인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이다. 원초적인 증언인 신약성서의 메시지는 변하는 역사 안에서 언제나 최고심의 구실을 한다. 그것은 만대의 교회를 평가하는 규범이다. 다른 모든 교회의 전통은 그것이 아무리 심오하고 탁월한 것이라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초적 증언을 중심으로 이 원초적 메시지를 제각기 다른 역사적 상황에 따라 해석, 주석, 설명, 적용한 것 밖에 아무 것도 아니다.<sup>75)</sup> 성서는 교회 전통을 규정하는 규범이며, 전통은 이 성서에 의해 규정된 규범인 것이다.

이상에서 교회의 본질을 규정하는 것은 교회의 근원인데, 교회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활동이며, 이 하나님의 구원활동에 대한 원초적인 증언이 신약성경에서 구체화되었으며,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이다. 한마디로 교회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이것이 교회의 본질을 규정한다. 교회의 어떤 전통도 교회의 본질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

---

74) 같은 페이지

75) *Ibid.*, p.30.

## 2. 교회의 근원

### a. 하나님의 나라

신약성서의 원초적인 증언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의 핵심적인 내용, 즉 예수의 설교에 있어서 중심개념은 하나님 나라다.<sup>76)</sup>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지배, 통치를 뜻한다. 예수의 하나님의 통치란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 즉 완전히 실현된 최종적·결정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한 사건으로서 다가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상설교도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인 것이다.

예수의 하나님 통치란 하나님 자신의 최고의 권능의 행사로 나타난다.<sup>77)</sup> 아무도 스스로 종말의 잔치에 초대받을 수 없다. 아버지 하나님이 초대한다. 그러기에 인간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기도할 수 있고(마 6:10, 눅 11:2), 하나님의 통치를 추구할 수 있고(마 6:33, 눅 12:31), 거기에 들어가려고 애쓸 수 있다(눅 13:24, 마 7:13). 또 슬기로운 처녀들(마 25:1-13)과 깨어 있는 종들(눅 12:35-37, 마 24:44)처럼 예비하고 대기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 나라를 주는 것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 통치권을 주고(눅 22:29,30)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 인지를 약속한다. 하나님은 확고부동하고 헤아릴 수 없이 깊은 주권과 자유를 가지고 왕권을 행사한다.”<sup>78)</sup>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를 어린아이처럼

---

76) *Ibid.*, p.47.

77) *Ibid.*, p.48.

받아들일 수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통치란 순수한 종교적 지배다.<sup>79)</sup> 예수가 유대 민족을 외국의 지배와 곤경에서 해방하고 현세의 이스라엘 왕국을 재건하려 온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 특히 제자들의 오해를 예수는 거듭 거듭 시정한다.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의 통치는 정치적 권력과 현세적 재물의 왕국이 아니라 회개와 신앙을 전제로 하는 하나님의 통치다.<sup>80)</sup>

또한 예수의 하나님 통치란 죄인과 불경건한 자들에 대한 복수의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들을 구원하는 하나의 사건이다. 복음은 권력자와 부자들만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하고 슬프고 천대받고 짓밟힌 이들을 위한 것이다.<sup>81)</sup> 또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히려 특별히 죄인과 불경건한 자들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죄인을 포함한 만민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예수의 하나님 통치란 사람들에게 어떤 개정된 도덕법규를 따르라는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근본적인 결단의 요구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냐, 현세와 현세의 통치냐라는 뚜렷한 양자택일의 요구다. 예수는 각자가 자신의 마음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두느냐 현세의 이익에 두느냐 하는 근본적 결단과 맞서게 한다.

다가오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현세와 인간의 죄악에서 돌아서야 한다. 동시에 새로운 방법으로, 사랑으로, 바로 그 현세와

---

78) *Ibid.*, pp.48-49.

79) *Ibid.*, p.49.

80) *Ibid.*, p.50.

81) *Ibid.*, p.51

타인에게 마음을 돌려야 한다. 예수는 금욕적인 현세 도피를 설교한 것이 아니다. “인간은 세계 안에서,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인간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만 일편단심을 바쳐야 한다. 하나님은 외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내적인 자세와 의도도 요구하신다.”<sup>82)</sup>

이 모든 것은 바로 회개와 믿음(막 1:15)에 직결되어 있다. “회개는 하나님의 통치의 선포가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회개는 근본적, 전적인 내적 전환이요 전인의 하나님에의 회귀이다.”<sup>83)</sup> 회개는 믿음과 직결되어 있다. 철저한 회개는 구원의 시대가 성취되었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요, 철저한 신앙은 자기 자신의 죄와 은총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수행할 자세를 표현하는 회개에서만 가능하다. 다가오는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조건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다.

#### b. 교회의 기원

예수의 교회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세워졌다. 신약성서의 어디에서나 교회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전제로 한다.<sup>84)</sup> 예수가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고부터 비로서 초대 그리스도 신자들은 “교회”를 말하고 있다.

---

82) *Ibid.*, p.52.

83) *Ibid.*, p.54.

84) *Ibid.*, p.56.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의 부활 후의 현상이다.

그러나 예수의 생애 없이는 교회도 없다. “부활 전의 예수는 설교와 활동에 의해 부활 후의 교회 출현을 위한 기초를 놓았다. 예수 부활 후의 교회 출현은 부활 전 예수의 접적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sup>85)</sup> 동시에 그의 메시지에 의해 분열을 일으켰고 그 메시지를 믿고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다가오는 하나님 통치를 위해 결정적 의미에서 새로운 자격을 지니게 했다. 그것은 곧 최후 완성의 미래적 구원 공동체에 속하는, 오로지 구원만을 기대하는 상속자로서의 자격이었다. 인종적 유래와는 상관 없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선포했다.

예수 부활 이래로 교회가 있다. “교회는 부활신앙으로부터 존재한다.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나사렛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서 한데 모여, 약속된 하나님 통치의 완성과 부활한 그분의 영광 중의 출현을 기다리게 된 이래로 교회가 존재한다.”<sup>86)</sup> 부활 전에는 그렇지 않았으나 부활 후로는 확실히 초대교회가 “교회”를 말하고 있다.

교회의 근원은 그러므로 단순히 부활 전 예수의 의도와 사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사건 전체, 즉 예수의 탄생과 활동과 제자 선택에서부터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그 부활의 증인들에 대한 성령의 부여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 전체에 있다.<sup>87)</sup> 예수의 생명의 부활 없이는 신앙인 공동체인 교회도 무의미하다. 십자가에서 죽은 분이 하

---

85) *Ibid.*, p.57.

86) *Ibid.*, p.59.

87) *Ibid.*, pp.59-60

나눔에 의해 영광을 받아 살아 계시다는 확신에서 비로서 인간 예수의 수수께끼는 풀렸고, 거기서 비로서 교회도 있을 수 있었으며 또 실지로 있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살아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있다는 것이며, 그런 영광된 분으로 제자들에게 발현했다는 것이다. 가장 오래 된 예수의 제자들이 하나님에 의하여 생명으로 부활한 예수를 실지로 확실히 만나보았다고 단호히 주장하고 있다. 상상이나 근거 없는 믿음이 아니라 참으로 살아 있는 분에 대한 현실의 체험에서 교회는 출발했다. 짐작 대신에 확신이, 의심 대신에 고백이 등장한다. 메시지의 전달자인 예수가 메시지의 중심 내용인 예수로 화한다. 마야흐로 예수는 자신을 계시하신 그분으로 제자들에게 인식되고 인정된다. 즉, 메시아로, 하늘에서 오는 인자로, 다윗의 아들로, 하나님의 종이며 아들로 주님으로 인식되고 인정된다.<sup>88)</sup>

이 신앙고백과 더불어 동시에 새로운 공동체가 현실화된다. 흩어졌던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 지점으로 모인다. 이 새로운 공동체의 체험은 제자들에게 기쁨과 감사의 계기가 된다. 제자들은 함께 잔치를 벌인다. “기쁜” 마음으로, 종말론적 희열로 “빵을 떼다”(행 2:42-47).

### c.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세속 희랍어에서 사용되던 말이었다. 희랍어로 ‘ekkletoi(시민)’이라는 단어는 ‘전령관의 부름을 받고 모인 사람들’을 뜻

---

88) *Ibid.*, pp.60-61.



했다. 그러므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불려나온 사람들”이고 이 불려나온 사람들의 모임이며 백성들의 집회다. 따라서 에클레시아가 직접 의미하는 것은 정치적 집회이지 신성한 종교의식의 집회는 아니다. 또 그것은 구체적 집회, 수시의 “회합”을 의미한다. 회합이 없는 휴회기간에는 에클레시아도 없다. 이런 의미의 에클레시아와 교회를 뜻하는 에클레시아가 다르다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 말의 신약성서상 용법을 직접 세속 희랍어에서 추론한다는 것을 불가능하다.

신약성서의 ‘에클레시아’ 개념의 척도가 되는 것은 희랍어의 어원을 캐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성서를 희랍어로 번역할 때 어떤 말을 사용했는가에 있다.<sup>89)</sup> 70인역에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100번 나온다. ‘에클레시아’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띠게 되는 것은 “주님의”(혹은 “야훼의”)라는 수식어가 붙을 때이다.<sup>90)</sup> 누가 무슨 목적으로 모이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이 미리 선택한 사람들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모임이다. 이리하여 이 말은 70인역에서도 종교적, 예배적 개념으로 되고 있었거니와, 그 후 점점 더 종말론적인 의미를 띠게 된다. 즉, 마지막 시대의 참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에클레시아가 되어가는 것이다. 초대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를 이어받음으로써, 의식적으로 참 하나님의 집회, 참 하나님의 공동체, 참 종말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처했다.

에클레시아는 실제 모이는 과정과 모이는 단체를 동시에 의미한다.

---

89) *Ibid.*, p.63.

90) *Ibid.*, p.64.

에클레시아는 일단 설정·수립되면 그대로 영속·불변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함께 모이는 일이, 모임이, 특히 예배의 모임이 거듭 되풀이됨으로써 이루어진다. 현실적인 집회야말로 신약 공동체의 발현이요 표현이며 실현이다. 뒤집어 말하면 공동체는 거듭 새로이 이루어지는 모임의 영속적인 근원이다. 교회는 실지로 함께 모이는 일을 뜻하는 것이다.<sup>91)</sup>

집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란 결코 단순히 정적인 제도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모임의 끊임없는 반복에 의하여 존재하는 단체임을 나타낸다. “공동체”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란 결코 단순히 모임과는 동떨어진 조직 기능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에 모이는 사람들의 단체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란 결코 아무런 상호관계가 없이 고립 자족하는 종교단체가 아니라 상호봉사를 통하여 결합된 하나의 포괄적인 공동체의 구성원들임을 밝혀준다.

### 3. 교회와 하나님 나라

#### a.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구별

한스 쾨에게 있어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주님

---

91) *Ibid.*, pp.64-65.

이시라는데서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가가 완전한 의미에서 선포되고 실현된다. 그러나 바실레이아와 에클레시아가 동일시되어선 안된다. “교회는 ‘지상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현실 양상’, ‘하나님 나라의 지주’라고 할 수 없다.”<sup>92)</sup> 여기서 어떤 동일성(교회=하나님 나라)도, 연속성도 주장할 수 없다. 신약성서에서 말하는 하나님 통치란 온 세계를 포괄하는 최종적, 결정적인 바실레이아이기 때문이다.

한스 쾨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동일성이 아닌 근본적 차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에클레시아는 본질적으로 현재의 것이요 미래에는 지양될 것인 반면에 바실레이아는 현재에 돌입해 있는 것이면서도 동시에 결정적으로 미래의 것이다.

에클레시아는 마지막 시대의 중간 시기를 순례하는 잠정적인 것인 반면에 바실레이아는 마침내 모든 시대의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영광이 나타날 어떤 확정적인 것이다. 에클레시아는 죄인과 의인을 동시에 안고 있는 반면에, 바실레이아는 의인과 성인들의 나라다. 에클레시아는 아래로부터 자라나고 현세적으로 조직화될 수 있으며, 발전·진보·변증법의 소산이다. 요컨대 인간의 일이다. 그러나 “바실레이아는 위로부터 돌입하고 즉각적인 활동이며, 측량할 수 없는 사건이다. 요컨대 하나님의 일이다.”<sup>93)</sup>

교회는 바실레이아가 아니다. 교회를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거나 지상에 넓힌다거나 그 실현을 위하여 일한다는 것도 옳지 않다. 그러므로 교회의 기도는 ‘우리로

---

92) *Ibid.*, p.69.

93) *Ibid.*, p.70.

하여금 아버지의 나라를 실현하게 하소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인 것이다.

#### b. 하나님 나라의 전조로서의 교회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 것은 아니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조이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내다보고 기다린다. 아니, 그 나라를 향해 순례하며, 전령으로서 세상에 그 나라를 선포한다.<sup>94)</sup>

하나님은 이 순례도상의 교회를 버리거나 잊지 않는다. 교회는 (미래의) 하나님 나라는 아니나, 지금 이미 돌입한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 하나님 통치의 최후 승리는 아직 훗날의 일이지만 그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적 사실이 된 것은 이미 옛날의 일이다.<sup>95)</sup> 교회는 아직 죽음의 그늘 아래 헤매고 있지만 비단 부활을 내다보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이미 부활한 주님이신 예수 안에서 결정적 사실이 된 부활을 되돌아보고 있다. 이 살아 있는 주님은 교회와 함께 있다. 이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영광 중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 항상 교회에 머문다. 은연중에 온 세계도 통치하는 이 그리스도의 통치는 교회 안에서 지금 이미 효과를 내고 있다. 즉, 지금 이미 말씀의 전파로 죄가 사해되고 새로운 인간이 이루어지며 그리하여 만물의 완성이 예고되고 있다. 지금 이미 세례의 집행으로 인간들이 가시적 상징 행위에 의해 마지막 시대의 공동체에 입회함

---

94) *Ibid.*, p.71.

95) *Ibid.*, p.72.

으로써 낡은 인간을 참회의 무덤에 묻고 신앙에 의해 새 인간으로 부활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있다.

교회는 종말론적 구원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통치 하에 살고 기다리며 순례하고 있다.<sup>96)</sup> 이리하여 다가오는 하나님 통치의 약속과 능력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교회 안에 실감나게 작용하고 있으며 은연중에 벌써 교회는 동터오는 하나님 통치에 참여하고 있다. 이리하여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부를 수가 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단계라고 부를 수는 없다. 교회는 결정적인 하나님 통치의 전단계는 아니나 가히 그 전조라고 할 수 있다. 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현존하는 하나님 통치라는 실재의 표징이요, 아직 미래의 일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성을 가리키는 전조다.

### c. 하나님 나라에 봉사하는 교회

온전한 의미의 교회는 그러므로 교회 자체에 교회의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지향하는 목적에 있다. 교회는 하나님 통치 하나님 통치를 외치고 알리는 전령이다. 그것을 가져다 주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다. 교회는 그러나 온전히 거기에 봉사한다. 하나님 나라에 봉사하는 교회인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봉사, 이것은 어쨌든 교회가 짊어지고 나가야 할 주어진 의무다.

그러면 교회는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실제 봉사하고

---

96) *Ibid.*, p.72.

있는가?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에 봉사하는가? 선포하는 메시지를 통해 예수 자신의 대변자가 되므로써이다. 주 예수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교회는 또한 집중적인 형태로 하나님 통치의 메시지를 짚어지게 된다. 이 메시지로 말미암아 교회는 예수 자신의 대변자가 된다.<sup>97)</sup> 예수가 “하나님의 통치”라는 표제하에 설교한 동일한 하나님의 요구들을, 교회는 이제 “주 예수”라는 표제하에 선포한다. 그러므로써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에 봉사하게 된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 통치에 봉사함에 있어서 믿을 만한 전령, 증인, 제시자, 선포자가 되어야 한다. 그럴려면 이 예수의 메시지를 우선 일차적으로 세상에, 남에게가 아닌 자기 자신에게 항상 되풀이해야 한다.<sup>98)</sup>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현재에 돌입하고 있는 미래의 하나님 통치의 메시지를 믿고 받아들여야 하고, 이미 현존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즉 하나님의 구원의지의 은총과 요구에 순종하는 자세를 거듭 새로이 다짐해야 한다. 교회의 신빙성은 온전히 예수의 메시지에 대한 충실성에 달려 있다.

#### d. 예수의 바실레이아 설교의 다섯가지 관점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의 ‘믿을만한’ 봉사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의 메시지에 충실해야 한다면, 예수에 의한 하나님 통치의 설교는 어떤 관점에서 선포되었는가를 알고 이를 따라야 할 것이다.

---

97) *Ibid.*, p.73.

98) *Ibid.*, p.74.

첫째, 지나가는 교회이다. 예수는 하나님 통치를 결정적으로 미래적·최종적인 마지막 시대의 사건으로 설교했다.<sup>99)</sup> 교회도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통치를 미래적·최종적인 것으로 설교한다면 이것은 교회 자신을 위한 명령으로서 다음과 같은 의미가 된다.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는 교회 자신을 설교의 중심으로 삼아선 안 된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 통치에서 출발하여 교회 자신의 과업의 결정적인 완성으로서 교회 자신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통치를 지향해야 한다. “교회는 스스로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의 계시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일시적, 잠정적, 과도기적인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교회는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내세워서는 안된다.”<sup>100)</sup> 교회는 항상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목적을 찾기를 명심해야 한다.

둘째, 신뢰하는 교회이다. 예수는 하나님 통치를 하나님 자신의 권능의 행위로 설교했다. 교회도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통치를 하나님 자신의 권능의 행위로 설교한다면 이것은 교회 자신을 위한 명령으로서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는 아무리 큰 노력으로 하나님 통치에 봉사할지언정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 해서는 안된다. 전적으로 신뢰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행동이지 교회의 행동이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한 일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며, 오직 그것을 증언할 수 있을 뿐

---

99) *Ibid.*, p.74.

100) *Ibid.*, p.75.

이다.”<sup>101)</sup>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란 하나님 통치를 이  
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교회 자신과 세계가 그것을 받아  
들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노력으로 열심히 준비하는 일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교회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좌우할 수 없다. 교회는 하나님  
의 요구 대신에 교회 자신의 결정과 법규와 관념들을 하나님 앞에서 세상  
에 내세워 주장할 권리가 없다. 교회 자신이 은총을 준다고 생각할 자격은  
없다. 항상 무조건 신뢰하면서 어린아이처럼 빈손으로 은총을 받아들여야  
할 교회인 것이다.

자신의 능력과 활동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래하고 건설하며 성취해  
야 한다고 상상하는 교회는 흠어지고 붕괴할 것이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  
을 신뢰하는 신앙이 깨어진 교회인 것이다. 그러나 교회 자신이 아닌 하나  
님이 이 마지막 시대를 출발시키고 지탱하며 통치한다는 것과 하나님이  
세계와 인류를 새로운 현실로 완성하여 주시리라는 것을 신뢰하는 신앙으  
로 확신하고 있는 교회는 모이고 건설하는 교회이다. 그런 교회의 겸손한  
신뢰에 힘이 주어질 것이다.

셋째, 봉사하는 교회라는 것이다. 예수는 하나님 통치를 순수한 종  
교적 통치로서 설교했다. 교회도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 통치를 순수한  
종교적 통치로 설교한다면 이것은 교회 자헌을 위한 명령으로서 다음과  
같은 의미가 된다.

---

101) *Ibid.*, pp.75-76.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는 결코 어떤 경우에도 종교 정치적 신정체제로 등장할 수 없다. “교회가 할 일은 영적 봉사다. 영적, 현세적 권력의 제국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봉사의 나라가 될 은총을 받은 교회다. 즉, 인간을 섬겨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 인간을 섬길 교회다.”<sup>102)</sup>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세속 권력을 장악, 유지하고 정책적 계략과 음모를 꾸미는 그런 수단에 안주할 수 없다. 현세적 영달과 호사를 부리고, 좌지우지 높은 자리를 할당하며, 현세적 칭호와 훈장을 수여하려 할 수 없다. 현세의 재물과 황금을 필요 이상으로 소유하려 해서도 안된다. 현세 권력과 제휴하고, 세속의 결사·정당·문화기구나 경제적·사회적 압력단체와 그들의 이념체계에 무비판적으로 영합할 수 없다.

이 마지막 시대에 자신이 인간에, 원수에, 세계에 대한 몰아적 봉사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간과하는 교회는 그 존엄성을, 타당성을, 존재가치를 잃는다. 그러나 “권능과 영광중에” 도래할 것은 교회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통치임을 항상 의식하고 있는 교회는 자신이 작기 때문에 참으로 크다는 것을 발견한다. 교회가 세상 세속 권력을 그 힘으로 삼아야 한다면, 그런 교회는 세상 안에서 무력해지고 만다. 그러나 교회의 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교회 자신의 십자가에 있다면, 교회의 약함이 강함이고, 교회는 두려움 없이 처음부터 보장되어 있는 부활의 승리를 의식하면서 제 길을 걸어갈 수 있다.

넷째, 죄인들의 교회라는 것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통치를 죄인들

---

102) *Ibid.*, pp.77-78.

을 위한 구원사건으로 설교했다. 교회도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통치를 죄인들을 위한 구원사건으로 설교한다면, 이것은 교회 자신을 위한 명령으로서 다음과 같은 의미가 된다.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는 아무리 세계와 그 권세들에서 구별되는 존재라 하더라도 위협하고 재앙을 선포하며 불안을 조성하는 기관으로 행세해서는 안된다. 파멸의 경고가 아닌 구원의 소식을, 폭언이 아닌 복음을, 선전포고가 아닌 평화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해야 한다.”<sup>103)</sup> 경건한 의인이 아니라 불경건한 죄인을 위재 존재하는 교회인 것이다. 판단하고 단죄할 것이 아니라 고쳐주고 용서하며 구원해야 할 교회이다. 불가피한 경고도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일깨우자는 것이다.

거룩하지 못하고 불경하고 사악한 사람들이란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교회에도 완전한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고, 모두가 위태롭고 연약하고 불안스런 것들이며, 모두가 거듭 개선을 요하는 것들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었을 때에야 비로서 밀과 가라지,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갈라져 있으리라는 것을 엄숙히 시인하는 교회, 그런 교회에는 스스로 이루어낼 수는 없는 거룩함과 의로움이 은총에 의하여 주어질 것이다. 그런 교회는 자기의 보화가 더러운 질그릇 속에 담겨 있음을 알며, 자기 빛이 희미하게 깜박이고 자기 신앙이 약하며 자기 지식이 막연하고 자기 신앙고백이 흔들림을 알고, 자기에게 유혹이 될 가능성이 없는 죄란 단 하나도 없이 이미 여러가지 모양으로 범죄와 태만을 저질렀음을 알며, 항상 죄를 멀리하려 한다고 해서 결코 죄인을 멀리할 구실은 없음을

---

103) *Ibid.*, p.79.

안다.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불린 사람들의 공동체로서 항상 자신의 잘못과 죄를 의식하고 있다면 그런 교회는 용서받는다든 확신을 가지고 명랑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그런 교회의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가오는 하나님 통치에서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으며, 그런 교회는 거의 항거할 수 없는 수많은 유혹과 거둬 되풀이 되는 실수와 과오에도 부룩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교회에는 스스로 낮추는 자는 높여지리라는 약속이 주어져 있는 것이다.

다섯째, 순종하는 교회라는 것이다. 예수는 하나님 통치를 위하여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결단을 요구했다. 교회도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결단을 요구한다면 이것은 교회 자신을 위한 명령으로서 다음과 같은 의미가 된다.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 자신도 하나님과 그의 통치나 아니면 세계와 그 통치나 하는 선택 앞에 서 있다.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근본적인 결단을 버리게 되어선 안된다. 교회야말로 거둬 회개하면서 세상의 메시지에서 돌아서야 하고, 다가오는 하나님 통치하에 서 있어야 하며, 그럼으로써 사랑으로 세계의 인간을 되돌아보아야 한다.”<sup>104)</sup> 그것은 세상을 등진 금욕적 고립이 아니라 세상의 일상생활에서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철저한 사랑의 순종이요, 세상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활동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교회는 회피할 수 없다.

이 마지막 시대에 누구에게 순종해야 할지를 잊어버리고 스스로

---

104) *Ibid.*, pp.80-81.

지배권을 찬탈하여 최고의 주권자로 군림하는 그런 교회는 스스로 자신을 엮어매어 노예화하는 교회다. 그러나 온갖 과오를 범하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통치를 내다보고, 자기가 누구에게 속하는지, 누구를 향하여 결단을 내렸는지, 누구를 향하여 끊임없이 되풀이하여 타협없는 단호한 결단을 갱신해 왔는지를 상기하고 있는 교회, 그런 교회는 참으로 자유로운 교회가 된다. 그런 교회는 자유로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세상에 봉사한다. 자유로이 하나님을 섬겨 인간을 섬기고, 자유로이 인간을 섬겨 하나님을 섬기며, 자유로이 부활하신 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고통과 죄와 죽음을 극복하고, 자유로운 이 창조적인 박애정신으로 세계를 개조·쇄신하며, 자유로이 확고한 결심으로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정의와 영원한 사랑과 진정한 자유와 우주적 평화를, 인류와 하나님과의 최종적 화해와 온갖 불경건한 것들의 지양을 희망한다.

이상이 교회가 변화하는 형태 속에서 지니고 있는 본질에 대하여, 그리고 비본질에도 불구하고 짊어지고 있는 과업들 중 가장 중요한 것들이다.

## B. 교회의 내적 구조(본질)

### 1.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 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근본적 동등성을 말한다.<sup>105)</sup> 교회 안에서 교회는 결코 어떤 특정한 계급 또는 신분이나 교회 내의 어떤 특정한 당국 또는 관료에 불과한 것이 아님을 말한다. 언제나 어디서나 교회는 온 하나님의 백성이요, 온 에클레시아며, 온 신앙인 공동체다. 모두가 선택된 민족이요, 왕다운 사제단이며, 거룩한 백성이다. 이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화되었으며 성령에 의하여 성화된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에서 모두가 교회 안에서 동등하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의 구성원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통하여 믿고 순종하며 완전한 사랑으로 헌신하라는 요구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교회”를 “평신도”와 구별하는 성직자 위주의 교회관은 그릇된 것이다. 신약성서에서 “라오스(laos)”라는 말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으로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대하여 것처럼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 반하여 “라이코스(laikos)”, 즉 “평신도”(문외한, 국외자)라는 말이 전혀 없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그것은 이교도들에게는 “무식한 대중”이라는 뜻이요, 유대인들에게는 사제나 레위가 아닌 사람이라는 뜻이었다. 그런 말을 어떻게 에클레시아에 해당하는 뜻으로 사용할 수 있었겠는가? 신약성서에서는 한 부류만이 아니라 모두가 “선택된 자”로, “성도”로, “제자”로, “형제”로 불리고 있고, 모두가 오직 한 주님, 오직 한 스승을 모시고 있다.<sup>106)</sup>

---

105) *Ibid.*, p.85.,

106) 한스킹은 교회 안에서의 구별, 즉 여러 가지 카리스마, 봉사활동, 직분, 기능들은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런 구별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laos’와 ‘laikos’로 표시될 순 없다.

둘째, 교회는 개개의 개인이 아님을 말한다.<sup>107)</sup>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다. 교회를 개인화 해서는 안된다. 부름(소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특권이나 명예가 아니라, 부름을 받은 자가 하나님에 의하여 백성을 위하여 섬기는 일을 맡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가 선택된 민족으로 불리운 사람들이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교회의 출발을 그리스도 신자 개인에게서 찾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신자 개인은 결코 혼자서가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존립하며, 나아가 각 개별 공동체도 교회라는 한 공동체 내에서 존립한다. 교회의 출발점은 신자 개인이 아닌 하나님이다. 하나님 자신이 모든 민족, 모든 신분, 모든 도시, 모든 촌락에서 백성을 모으신다. 하나님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교회란 단순히 교회 구성원의 공동의사 또는 “동지 정신”에 입각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의 존재와 본질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미리 결정되며, 전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존한다.

셋째, 교회는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다.<sup>108)</sup> 모두가 각자의 인간적인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다. 교회를 실체화 해서는 안된다. 교회는 결코 구체적인 인간과 인간의 결단을 초월하는 존재가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나 인간 없이 교회란 없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의 부름과 선택 없이 교회란 없듯이 인간의 순종하는 신앙의 응답

---

107) *Ibid.*, p.86

108) *Ibid.*, p.89.

과 동의 없이도 교회란 없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총과 사랑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없듯이, 부름을 받은 인간의 자유로운 신앙과 순종 없이도 하나님의 백성이란 없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은총과 선택하심과 부르심에 대한 결단의 응답을 한 인간들의 공동체, 곧 믿는 인간들의 공동체인 것이다. 신앙인들이 교회인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하나의 신에 준하는 실체로 보는 실체론적인 교회관은 그릇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교회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체적인 인간과 유리되어 하나의 대상, 곧 객관적인 실체가 되고 만다. 즉, 하나님과 인간을 중개하는 초인격적인 존재가 되고 만다.

넷째, 교회는 이상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sup>109)</sup> 모든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백성은 역사상의 백성이다. 교회는 살아 있는 현세의 민족들에서 거듭 새로이 소집되는, 그리고 시간 속에서 방랑하는 백성이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도중에, 여행 중에, 순례중에 있다. 방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항상 역사적 현상으로서 나타난다. 그러므로 교회를 모든 현세적인 것, 모든 과오, 모든 죄악과 무관한 존재로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것은 이상주의적인 그릇된 교회관이다.

이렇게 되면 역사상의 현실 교회는 퇴색하여 현실 세계와 동떨어진, 거짓 후광에 싸인 이상으로 화하고 만다. 이런 이상 교회는 결함도 과오도 없고 오류도 죄악도 모르며, 따라서 참회도 회개도 필요없는 교회다.

---

109) *Ibid.*, p.91.

그러나 죄악도 오류도 없는 완전한 존재란 홀로 하나님 밖에 들도 없다. 이상 교회란 존재하지 않는다. 성서의 증언에서도 이상 교회란 존재하지 않는다. 성서가 증언하는 교회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따라 항상 새로이 사죄를 필요로 하는 죄인들의 백성으로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일 뿐이다. 계속 실패와 방황의 어둠 속을 걸어가면서 교회는 계속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지향한다. 계속 유혹과 시련에 봉착하면서 계속 겸손과 회개에 매사를 건다.

“항상 개혁되어야 할 교회”란 특별히 어려운 시기의 슬로건일 뿐 아니라 순례도상의 하나님의 백성이 거듭 새로운 노력으로 더욱 큰 충성을 바쳐야 한다는 하나님 자신의 나날의 요구다.

## 2. 성령의 피조물로서의 교회

오늘날 개신교 신학자들은 교회와 성령의 관계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 로흐만은 오늘의 기독교 신학이 영의 망각증에 빠졌음을 지적하며 기독교 중심적인 신학에 너무 몰두해 있음을 지적한다.<sup>110)</sup> 폴틸리히도 성령의 현존경험을 바탕으로 “영적 공동체”를 형성한다고 한다.<sup>111)</sup> 성령의 사역과 교회의 현존과의 관계성에 더 깊은 관심을 갖은 몰트만도 교회라

---

110) Lochmann, 『사도신경해설』, 오영석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4), p.166

111) Paul Tilich, *Systematic Theology*, V.3.(USA: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3.), p.151



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성령 안에서 일어난다고 한다.<sup>112)</sup>

그동안 교회와 성령의 관계를 소홀히 다루어 왔던 카톨릭에서도 한스 쾅 같은 신학자는 이를 매우 강조하며,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임을 말하고 있다. 곧 교회는 성령이 짓는다고 한다.<sup>113)</sup> 하나님의 영은 교회를 채우고 있다. 교회는 영이 채워져 있고 영이 활동하고 있는 성전이요 건물이다. 요컨대 영의 집이다. 하나님의 영은 이리하여 여러 면에서 교회의 존립기초요 생명원리이며 활동능력임이 드러난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에서 오는 영에 의해 충족되고 생활하며 유지되고 인도된다. 교회의 모든 원천·존재·존속이 영의 덕택이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이다.

그러나 교회와 성령을 동일시하는 것은 위험하다. 성령은 교회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다.<sup>114)</sup> 여기에 성령의 근본 자유의 근거가 있다. 영은 교회가 적용하고 부여하는 능력과 권능이 아니요 하나님의 그것이다. 이 영을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 안에 활동하고, 교회에게 자신을 계시하며, 교회에로 내림하고, 교회를 설립·유지한다. 이 영은 교회를 통할한다. 그러나 교회 자체의 영이 되지는 않는다. 이 영은 하나님의 영이다. 따라서 언제나 자유로운 영이다.

성령과 교회를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를 “신성한” 존재라고 말해선 안된다. 그리스도 신자 개인도 물론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고 해서 “신성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

---

112) Moltmann, p.147

113) 한스쾅, *op.cit.*, p.95.

114) *Ibid.*, p.96.

이렇게 교회와 성령을 구별해서 본다는 것은 중요하다. 구별을 인정함으로써만 교회의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면모인 과오와 실패를, 죄와 잘못을 참으로 자유롭게 시인할 수 있다.<sup>115)</sup> 자신을 성령과 동일시하는 교회는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바칠 여지가 없다. 성령과 교회를 구별할 줄 아는 교회는 교회 내에도 죄와 허물이 있음을 냉정하고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고, 이미 의화된 자로서 새로운 사죄를 받아 해방되리라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 겸손하게 자신을 자유로운 하나님의 영과 구별하는 교회는 비록 약함을 부인할 수 없더라도 결국 강한 교회요 온갖 부자유를 드러내면서도 필경은 자유로운 교회다.

우리는 결국 우리 자신인 교회를 믿을 수 없다.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을 믿듯이 하나님과 다름이 없는 성령을 믿는다. 교회의 창조자요 지탱자요 근원인 성령을 믿는다.

성령의 활동은 교회에 의해 제한될 수 없다.<sup>116)</sup> 성령은 어디서나 뜻대로, 온 하나님 백성 안에서 활동한다. 하나님의 영의 능력은 모든 담장을, 교회의 담장도 꿰뚫는다. 물론 교회는 성령의 거처요 성전이다. 성령은 교회를 채우고 통할한다. 교회에서 성령의 능력이 특별히 드러난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교회에 거처를 두고 있으면서도 교회 안에만 거처하지는 않는다. 그분은 자유로운 주님의 자유로운 영이다. 비단 성도의, 비단 교회의 직무의, 비단 카톨릭 교회의, 비단 그리스도교의 주님만이 아닌, 온 세상의 주님의 영이다.

---

115) *Ibid.*, p.97.

116) *Ibid.*, p.98.

교회의 법, 교회의 권리, 교회의 권력이 하나님의 영을 지배할 수는 없다. 하나님의 영이야말로 교회 법, 교회권리, 교회권력의 최고 지배자다.<sup>117)</sup> 따라서 교회 내에서 어떤 수단으로든 성령의 법과 권리와 권력을 장악하려 하는 자는 누구나 필연적으로 실패하고 만다. 교회는 성령을 장악할 수 없다. 소유할 수 없다. 지배·제한·조정·지휘할 수 없다.

교회는 성령에게 명령하고 성령을 규제해서는 안된다. “오소서”라고 기도하고 청할 수 있을 뿐이다. 물론 하나님의 영은 교회의 집 안에 산다. 물론 교회에 머물고 교회를 통하여 활동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교회에 살고 머물고 활동하는 것은 법에 의하여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실성에 의하여 그렇게 원하기 때문이다.

교회인 우리는 의화된 사람이면서도 죄인임을, 거듭 죄인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을 거역하고 그분을 근심케 하므로 그분을 잃을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충실성과 은총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머무는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들에게 항상 참회를 거듭하면서 부르짖는 일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다. “오소서 성령이여”만이 아니라 또한 “머무소서 성령이여”라고, “우리는 불충하오나 당신은 충실하시니 우리에게 머무소서!”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 교회가 자체의 실패와 불충함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음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실성의 기적이다.<sup>118)</sup>

---

117) *Ibid.*, p.100.

118) *Ibid.*, p.102.

성령은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은사를 통하여 교회 내에서 활동한다. 가장 넓은 의미의 카리스마는 개인에 대하여 공동체 내의 특정한 봉사활동을 부과하고 동시에 이 봉사활동을 수행할 능력을 부여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카리스마와 소명과 봉사는 서로 의존관계에 있으며 용어상 부분적으로 서로 교차관계에 있다.

교회에 충만한, 이 엄청난게 다양한 카리스마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다양성 속에서도 통일성이, 자유 속에서도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첫째, 각자가 자기의 카리스마를 가지는 것이 교회 질서의 기본 원리이다. 누구도 자기를 남보다 높이고 모든 것을 장악하여 자기에게 종속시키려 해서는 안된다.

둘째,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이다. 각자가 가진 카리스마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교회 질서의 둘째 원리다. 그리스도 신자는 그러므로 자기 카리스마를 교회 안에서 지위와 권력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남과 전체에 봉사하기 위한 은혜로 삼아야 한다. 카리스마는 십자가와 봉사와 사랑을 호소한다.<sup>119)</sup>

카리스마적 교회 질서의 셋째 원리는 주님께 순종이다. 각자가 한 영 안에서 각자의 카리스마를 가지고 한 주님께 순종하면서 서로 사랑으로 봉사함을 의미한다. 모든 카리스마를 부여하는 동일한 근원인 하나님께 순종한다. 카리스마를 주신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이며, 그 목적은 공동체의 건설이다.

---

119) *Ibid.*, p.104.

### 3.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그리스도는 이제 뚜렷이 교회의 “머리”로서 나타난다.<sup>120)</sup>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는 교회에 현존한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부활한 주님으로서 교회에 현존한다. 교회 없이 그리스도 없고 그리스도 없이 교회 없다. 교회의 생명은 그리스도가 과거에 행한 업적의 결과나 미래에 완성된 그의 업적의 기대만이 아니라 현재에 활동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생생한 현존에서 나온다. 복음의 선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한때의 하나님의 구원행위를 보고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자신이 일하고 있다. 두 세 사람이 그분 이름으로 모여 있는 곳에는 그 가운데 그분이 있다(마 18:20).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다(마 28:20).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교회는 존재한다.

그리스도는 교회에 현존하면서도 어디까지나 교회의 주님이다. 그리스도는 머리다. 머리는 몸을 통치한다. 머리라는 개념에는 항상 통치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몸은 전적으로 머리에 의존한다.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다는 것은 지극히 중요한 일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도 없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요 교회 성장의 근원이며 목표인 한, 교회는 이 머리에 순종하므로써만 성장이 가능하다.<sup>121)</sup> 머리와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교회는 겉으로 아무리 분주하게 활동한다 하더라도 성장하는

---

120) *Ibid.*, p.109.

121) *Ibid.*, p.113.

것이 아니라 위축한다. 아무리 눈부신 발전을 보인다 하더라도 궁극에는 불구의 성장임이 드러나고, 아무리 거대한 진보를 보인다 하더라도 필경에는 그것이 비참한 퇴보임이 드러난다. 교회 내의 진정한 활동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활동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교회는 동일시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교회의 주님이요 머리인 그리스도는 교회 뒤로 물러나고 교회 자신이 계속 새로 강생하는 현재의 그리스도로서 행세하는 셈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계시에 대하여 순종해야 할 위치에 있다. 어느 한 순간이라도, 아무리 교회의 역사가 발전한다 하더라도, 교회가 이 순종의 위치를 떠나 지배의 위치에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좌우할 수는 없다. 교회는 자주 실로 기이한 우회 수단으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억지로 자기 “소유”로 삼으려 했지만, 그런 때는 으레 조난을 당했다.<sup>122)</sup> 그러나 교회가 본연의 자기를 되찾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소유가 되기 위하여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함으로써, 흔히 갖가지 저항을 받으면서도 그리스도께로 되돌아갔을 때 으레 새로운 생명을 발견했다. 겸손하고 조심스럽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고 그것을 자기 소유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 듣고 전파하고 실천하려 하는 교회는 인간이 줄 수 없는 권위를 얻는다.

이상에서 한스 쾨른은 에클레시아를 “하나님의 백성”, “성령의 피조물”, “그리스도의 몸”으로 규정함으로써 교회의 근원에 근거하여 현실교회의 역사적 본질을 말했다.

---

122) *Ibid.*, p.115.

## IV. 칼빈과 쾅의 교회론 요약과 비교

### A. 요약

#### 1. 칼빈의 교회론

첫째,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이다. 교회는 신자를 보호, 양육하고 성장하게 하는 신자의 어머니이다. 하나님은 교회에 목사들과 교사들의 설교와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 신자들을 양육하여 성장하도록 하신다.

둘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시며, 모든 교회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 복종함을 말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서로 나누는 '성도의 교통'과 교회의 연합을 의미한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서로 연합된 몸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교회의 품속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으므로 우리 구원은 확실하고 견고한 기초 위에 서 있다는 확신과 위로를 준다.

셋째,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의 공동체다. 하나님의 은밀한 선택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밀한 선택이라는 견

고한 기초 위에 서 있으므로 온 세계의 조직이 무너지더라도 교회는 흔들리거나 넘어질 수가 없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인을 치신 사람을 따귀가 어떤 수단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분리되게 할 수 없다. 또 교회는 영원불변하시는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지체가 찢기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는 것과 같이 신자들이 자기에게서 멀어지는 것도 허락하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밀한 선택이 교회의 견고한 기초가 된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이런 확신과 위로를 준다.

넷째, 교회에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보이는 교회는 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한다고 고백하며 공동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를 말한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으로서의 보이지 않는 교회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눈에만 보인다. 주의 눈만이 주의 휘장을 달고 다니는 자들 가운데서 진정으로 거룩한 사람들과 구원의 종점에 이르기까지 견인할 자들을 알아보신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의 판단으로 믿음의 고백과 삶의 모범과 성례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교회의 회원으로 인정하게 된다.

다섯째, 교회의 표지는 말씀과 성례, 그리고 권징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나라이며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말씀만으로 지배하시므로, 말씀과는 별개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존재할 수 없다. 말씀을 듣는 자는 연약한 인간



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말이 되게 하신다는 믿음과 공경심으로 들어야 한다. 선포된 말씀에는 이중효과가 있다. 말씀은 듣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가 하면 정죄할 수도 있으며, 말씀은 신자들의 구원에 효험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악인들을 정죄하는 데 효험이 있다. 신자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거스르려는 타고난 성향들을 죽이고 자기 마음에서 악한 것을 죽이고, 굴복시키며, 내쫓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 아래 있을 때 계속 새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

성례는 외적인 상징으로 확인되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이다. 말씀과 함께 거행되는 성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살을 찢고 보혈을 흘리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앞에 계시며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나 다름 없이 떡과 포도주라는 상징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제시된다. 성례를 통해 우리를 위해 자신의 구원사역을 이루신 그리스도에게서 결정적인 효과가 우리에게로 흘러들어온다. 성례의 효과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는 분은 성령이시다.

권징은 추악하고 부끄러운 생활을 하는 자들을 제명시키므로써 이들의 악한 누룩이 교회 온덩어리에 퍼지지 않게 하려는 데 있다.

## 2. 쾅의 교회론

쾅의 교회론은 역사성을 강조한다. 교회는 변화하는 세계 속에 있으며, 이 변화하는 역사 속에서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 이 세계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 교회의 본질은 교회의 근원에 의해 규정된다.

한스 쾅은 교회의 본질을 규정하는 교회의 근원은 무엇인가를 밝힌 후에 그러면 교회의 근원에 의해 규정되는 교회의 본질이란 무엇인가를 말한다.

첫째, 교회의 근원(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 그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에클레시아) :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는 완전히 실현된 최종적·결정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바실레이아의 선포가 그 핵심이다. 이 하나님의 통치는 정치적 권력과 현세적 재물의 왕국이 아니라 회개와 신앙을 전제로 하는 순수한 종교적인 하나님의 통치이며, 죄인과 불경건한 자들에 대한 복수의 심판이 아닌 구원의 사건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나, 현세와 현세의 통치나 단호한 양자택일을 요구한다. 다가오는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조건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다.

예수의 교회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세워졌다. 교회는 부활신앙으로부터 존재한다.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나사렛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서 한데 모여, 약속된 하나님 통치의 완성과 부활한 그분의 영광 중의 출현을 기다리게 된 이래로 교회가 존재한다. 십자가에서 죽은 분이 하나님에 의해 영광을 받아 살아 계시다는 확신에서 비로서 교회도 있을 수 있었으며 또 실지로 있었다. 참으로 살아 있는 분에 대한 현실의 체험에서 교회는 출발했다.

“에클레시아”로서 교회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에 모이는 사람들의 단체이며, 상호봉사를 통하여 결합된 공동체이다. 에클레시아는 바실레이아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전조이긴 하

다. 하나님 나라의 전조로서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봉사하는 교회이다. 교회는 하나님 통치를 외치고 알리는 전령으로서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 봉사한다. 교회는 하나님 통치에 봉사함에 있어서 믿을 만한 전령, 증인, 제시자, 선포자가 되어야 한다. 그럴려면 이 예수의 메시지를 우선 일차적으로 세상에, 남에게가 아닌 자기 자신에게 항상 되풀이해야 한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 봉사하는 교회는 교회 자신의 봉사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교만에 빠져선 안되고 무조건 신뢰하면서 어린아이처럼 빈손으로 은총을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 봉사하는 교회는 권력과 재물과 영광의 자리에 서지 않고 종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교회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인간과 세계에 대해 몰아적 섬김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 봉사자로서의 교회는 경건한 의인이 아니라 불경건한 죄인을 위해 존재하며 죄인들을 위한 구원사건으로서의 하나님의 통치를 설교하면서 파멸의 경고가 아닌 구원의 소식을, 폭언이 아닌 복음을, 선전포고가 아닌 평화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여 고쳐주고 용서하며 구원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결단의 요구를 설교하면서 스스로 순종해야 한다. 교회야말로 거듭 회개하면서 세상의 메시지에서 돌아서야 하고, 다가오는 하나님 통치 하에 서 있어야 하며, 그럼으로써 사랑으로 세계의 인간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둘째, 교회의 본질(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 성령의 피조물로서의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는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별하는 성직자 중심의 교회관을 배제한다. 특정인을 중심하여 개인화되어 높임을 받아선 안된다.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동등하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는 교회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신에 준하는 실체로 보는 실체론적인 교회관도 배제한다. 교회는 시간 속에서 방랑하는 백성으로서 근본적으로 순례 도중에 있다. 교회는 실패와 방황의 어둠 속을 걸으면서 오류와 과오, 죄악을 범하므로 항상 새로이 회개하며 계속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지향한다. 그러면서 “항상 개혁되어야 할 교회”이다.

성령의 피조물로서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존립하며 생명과 활동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 교회를 말한다. 교회가 성령을 좌지우지하며 교회의 활동을 위해 성령을 도구화 할 수 없다. 교회의 법, 교회의 권리, 교회의 권력이 하나님의 영을 지배할 수는 없다. 하나님의 영이야말로 교회 법, 교회권리, 교회권력의 최고 지배자다. 교회는 다만 성령께 “오소서”라고 기도하고 청하며 성령의 은총을 의지할 뿐이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으로서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그 속에 현존하며 활동하고 있는 교회를 말한다. 교회의 생명은 현재에 교회에 활동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생생한 현존에서 나온다. 특히 그리스도는 교회의 예배에 현존한다. 또한 십자가에서 죽고 영광중에 부활한 주님이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 현존하게 된다. 그리스도가 교회에 현존한다고 해서 결코 몸인 교회와 동화하지는 않는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의 주님이다. 교회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자기의 머리요 주로 인식하며 그의 소유가 되어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할 때

만 그 머리로부터 생명을 받으며 권위를 받는다.

## B. 비교

### 1. 교회론의 출발점

이상을 근거로 칼빈과 쾨의 교회론의 구조를 보면 칼빈은 교회의 필요성에서 출발하여 교회의 본질을 말하고 있고, 쾨는 교회의 근원에서 출발하여 교회의 본질을 규명한다.

칼빈은 하나님의 수단으로서의 교회의 필요성을 말했는데, 이는 완전하지 못한 지상의 신자들을 보호, 양육하고 성장하게 하는 신자의 어머니로서의 교회이다. 쾨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의 핵심인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교회의 근원으로 보며, 여기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봉사하는 자로서 존재한다.

칼빈은 신자는 어머니인 교회 안에서 목사의 설교와 교사들의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으므로써 양육받아야 할 것을 강조한다. 쾨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믿을만한 전령(또는 증인, 제시자, 선포자)으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섬기는 종으로서, 경건한 의인이 아니라 불경건한 죄인의 구원과 치유, 용서를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봉사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2.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칼빈과 쾨은 공히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말한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말하면서 둘 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 주님이 이요 통치자이심을 교회가 인식하고 복종해야 할 것을 강조한다. 교회가 머리인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만 교회에 생명과 권위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칼빈과 쾨은 일치한다.

그러면서 칼빈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말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성도의 교통'과 교회의 연합, 그리고 이 교회의 품 속에 속한 자의 구원의 견고함과 확실성에 초점을 둔다. 한편 쾨은 교회 내의 그리스도의 현존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에 생생하게 현존하며 활동하므로써 교회에 생기를 준다는 것을 말한다.

## 3.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

칼빈과 쾨은 공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교회를 말한다. 그러면서 칼빈은 교회의 견고한 기초가 되는 점에서 하나님의 선택의 유용성에 초점을 맞춘다. 하나님의 은밀한 선택의 기초 위에서 있으므로 신자는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떨어질 수 없으며 그 구원은 확실하고 안전하다는 확신과 위로를 준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무너지거나 파멸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쾅은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의 전부로서의 교회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므로 성직자 중심의 교회관을 배제할 것과 교회인 하나님의 백성은 오류와 과오, 죄악을 범하며 순례하는 도중에 있는 죄인으로서의 백성이므로 항상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의지하며 항상 개혁되어야 할 교회임을 강조한다.

#### 4. 기타

교회론에 있어서 쾅이 말하지 않았으나 칼빈이 말한 것, 그리고 칼빈이 언급하지 않았으나 쾅이 언급한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두 사람이 각각 따로 말한 교회론의 강조점들을 정리해 본다.

##### a. 칼빈의 강조점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론이다. 참된 교회는 참으로 선택받은 참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는 오직 하나님의 눈에만 보인다. 보이는 교회에는 쪽정과 가라지와 이리가 함께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랑의 판단으로 동일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과 성례에 참여하는 자들을 교회의 회원으로 인정하게 된다. 둘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나라이며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말씀만으로 지배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부름받고 지명된 설교자를 통해 사람들에게 들려진다. 신자는 신자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거스르려는 타고난 성향들을 죽이고 자기 마음에서 악한 것을 죽이고, 굴복시키며, 내쫓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 아래서 계속 새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 셋째, 하나님은 성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게 하신다.

#### b. 령의 강조점

성령의 피조물로서의 교회이다. 교회와 성령을 동일시하는 것은 위험하다. 성령은 교회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다. 성령의 활동은 교회에 의해 제한될 수 없다. 성령은 어디서나 뜻대로, 온 하나님 백성 안에서 활동한다. 그분은 자유로운 주님의 자유로운 영이다.

교회의 법, 교회의 권리, 교회의 권력이 하나님의 영을 지배할 수는 없다. 하나님의 영이야말로 교회 법, 교회권리, 교회권력의 최고 지배자다. 따라서 교회 내에서 어떤 수단으로든 성령의 법과 권리와 권력을 장악하려 하는 자는 누구나 필연적으로 실패하고 만다. 교회는 성령을 장악할 수 없다. 소유할 수 없다. 지배·제한·조정·지휘할 수 없다. 교회는 성령에게 “오소서”라고 기도하고 청할 수 있을 뿐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인 교회를 믿을 수 없다.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을 믿듯이 하나님과 다름이 없는 성령을 믿는다. 교회의 창조자요 지탱자요 근원인 성령을 믿는다. 성령은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은사를 통하여 교회 내에서 활동한다.



## V. 결론

이상에서 칼빈과 쾨의 교회론을 살펴보면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충실한 봉사자로서의 존재이유가 있다. 최종적으로 실현되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며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령으로서, 이 세상을 섬기는 종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봉사하는 교회여야 한다. 교회가 교회주의에 빠져서 자기 교회를 지상 왕국과 같이 만들려는 오류에 빠져선 안된다.

둘째, 교회는 신자를 말씀의 가르침으로 잘 보호하고 양육하고 성장시키는 신자의 어머니라는 것이다. 목사와 교사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자를 품고 양육해야 한다. 신자는 교회의 품을 떠나지 않으며 목사와 교사의 말씀의 가르침과 양육을 잘 받을 때 자랄 수 있다.

셋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교회의 주인으로, 통치자로 모시고 그에게 복종하므로써 권위와 생명을 부여받아야 한다. 그러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생생하게 현존하면서 교회에 생명을 주며, 교회의 품 안에 있는 모든 자는 그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교회에 대한 믿음의 근거는 여기에서만 찾을 수 있다.

넷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관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의 백

성은 죄악을 범하며 순례하는 도중에 있는 죄인으로서의 백성으로서 항상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의지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교회는 하나님의 은밀한 선택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서 있으므로 흔들리지 않음을 확신해야 한다.

다섯째,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론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눈에 참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두려움으로 가시적인 교회는 하나님 앞에 항상 서야 한다.

여섯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나라이며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말씀으로 지배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로 세움을 받은 자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듣는 자는 연약함과 약점을 가진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경외와 믿음으로 들어야 한다. 말씀을 거스리는 성향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교회가 새 생명으로 살아날 것이다.

일곱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의 은혜가 교회 안에 흘러들고 그리스도와 깊이 교통하며, 성도들이 이 은혜 안에서 교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여덟째,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 존립하며 생명과 활동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교회는 성령을 교회의 제도나 사역을 위해 도구화 하는 죄를 범해선 안된다. 전적으로 자유롭게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순종하므로써 교회는 생기를 얻을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균진, 『조직신학』 4권 서울:연세대학교출판부, 1997.
- 김명용, 『열린 신학 바른 교회론』 서울: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1998.
- 이장식, 『현대교회학』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61.
- \_\_\_\_\_ “한스 쾅의 신학”, 기독교사상 제 289호, 1982년 7월호.
- 이종성, 『칼빈-생애와 사상-』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 \_\_\_\_\_ 『교회론』 (I) 서울:대한기독교출판사, 1989.
- \_\_\_\_\_ 『교회론』 (II) 서울:대한기독교출판사, 1989.
- 한국칼빈학회, 『(최근의) 칼빈연구』 서울:대한기독교서회, 2001.
- Augustine, Questions on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 xi. 1-2(Mpl35.1367f.).
- Augustine, Jonn's Gospel xlv. 12(MPL 35. 1725;tr. NPNF VII, 253f.)
- Baum,G. Cunitz,E. Reuss,E. Lobstein,P and Erichson,A. I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ma, ed.
- Calvin,John. 『기독교강요 (下)』 김종흠 외 3인 역. 서울:생명의 말씀사, 2001.
- Jay,Eric J. (The) Church : Its Changing Immage through Twenty Centries 주재용 역, 서울:대한기독교서회, 2002.
- Küng,Hans. The Church 이홍근 역, 왜관:분도출판사, 1995.
- Lochmann,J.M. 『사도신경해설』 오영석 역, 서울:대한기독교출판사, 1984.
- Mckim,Donald K. Readings in Calvin's Theology 이종태 역, 서울:생명의 말씀사, 1991

- Niesel,Wihelm. The Theology of Calvin 이종성 역;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73.
- Tilich,Paul. Systematic Theology,V.3. Chicago: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3.
- Wallace,Ronald S.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선포된 말씀”, 『칼빈신학의 이해』 이종태 역, 서울:생명의 말씀사, 1991.
- Wendel,Francois. Calvin 김재성 역, 서울:크리스찬다이제스트사, 2001.